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Implicit Representation of Gender Stereotype: Priming Effects of Attribute Typicality and Gender Congruency

이 재 호** 방 희 정***
(Jae-Ho Lee) (Hee-Jeong Bang)

요 약 성별 고정관념은 대인 집단에 관한 표상이며 암묵적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고정관념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 변인의 효과가 암묵적 점화과정에 반영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의 성별 속성을 전형성과 선호도 변인을 조작하여 점화 자극으로 제시한 다음 성별 이름에 대한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 전형성 변인의 효과만 관찰되었고, 그 효과는 여자에서 나타났다. 반면에 집단 일치성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고정관념의 속성간 조건으로 전형성 변인의 점화효과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성별 범주의 주효과만 나타났고, 여성 속성이 남성 속성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전형성 변인의 주효과와 집단 일치성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실험의 결과, 성별 고정관념의 속성 전형성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미약하지만 표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성별의 집단 일치성 효과는 표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성별 속성이 미약하지만 전형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상되었을 가능성과 성별의 표상이 참가자 성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표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제어 성별 고정관념, 점화효과, 전형성, 선호도, 사회인지

Abstract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implicit representation of gender-stereotype using primed naming task for prime-target pairs.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gender's attributes as primes at SOA 250ms and were asked to pronounce person's names which differed in typicality and preference of gender's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congruent effects was not found, but typicality effects and interactions were found.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presented gender's attributes as primes at SOA 250ms and were asked to pronounce gender's attributes which differed in typicality of gender's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woman's attributes superiority effects were found, but typicality effects were no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graded representation of gender stereotype and asymmetrical processing of gender stereotype to priming conditions in the implicit level.

key word gender stereotype, priming effect, typicality, social cognition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별, 연령, 혹은 인종 등에 대한 판단을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지각적 정보는 내면적 성격 특성이나 태도 혹은 행동에 대한 추론을 하는 준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지각된 몇 가지 정보에 근거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범주화하며 그 범주의 일반적 속성에 근거하여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작용하는 지식이 고정관념(stereotype)이다. 고정관념은 사회적 정보에 관한 일반적 수준의 지식으로, 지각된 정보를 범주적으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같은 고

* 이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지원(KRF-2002-074-HS1002)으로 수행되었다.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Chung-Ang University)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Ewha Womans University)

교신저자주소 : 방희정, 서울 서대문구 대학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E-mail: hjbang@ewha.ac.kr)

정관념의 하향적 작용은 복잡한 사회 정보의 처리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준다(Devine, 1989; Fiske, 1998; Greenwald & Banaji, 1995; McGarty, 1999).

고정관념은 사회 정보의 범주적 지식이지만 이러한 지식이론은 대인 정보이외의 일반 인지의 지식이론에서 출발하였다(예; Kunda, 2000).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행위의 비사회적 정보의 범주 지식은 수직적인 수준에서는 위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수평적 구조에서는 전형성에 따른 단계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예; 이재호와 이정모, 2000; 이재호, 이정모, 및 전문기, 2002). 그렇다면 사회적 정보 지식도 일반 정보 지식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지식과 '과일'에 대한 지식이 동일한 범주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범주는 인지 일반의 범주와 두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범주에서는 태도와 평가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범주의 처리에 정서나 감정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예; Fiske, 1998; Kunda, 2000). 둘째, 사회적 범주에는 처리자의 소속된 집단과 평가 대상의 소속된 집단의 일치성(congruency) 변인이 작용된다는 점이다(Blair & Banaji, 1996; Fiske & Taylor, 1991).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 인지의 이론에서는 간과되어 온 변인들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범주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반 범주의 주요 차원이 사회적 범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범주 가운데서 성별 범주를 중심으로 사회 범주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Fiske(1998)에 의하면 성별 범주는 인종이나 연령 등 다른 사회 범주들에 비해서 정보처리의 비중이 크며, 발달상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범주임이 강조된 바 있다. 우리 문화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표상에서 상호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예; 조혜자, 2001). 이는 성(sex or gender)¹⁾에 대한 정보의 해석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임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같은 가정하에 이 연구는 성별 범주를 중심으로 사회 인지의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내집단과 외집단의 일치성 효과를 암묵적 수준에서 검증하고, 사회 인지의 표상에도 비사회적인 인지 일반의 단계적 표상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형성(typicality) 변인의 효과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별 집단의 일치성 효과

기존의 고정관념 연구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일치성 효과(congruency effects)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상대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Fiske, 1998; Greenwald & Banaji, 1995; Kunda, 2000). 예를 들어, Dovidio 등(1986)이나 Fazio 등(1986)의 연구를 보면, 백인 참가자의 경우는 '백인-긍정'과 '흑인-부정'에 대한 반응이 '백인-부정'과 '흑인-긍정'에 대한 비해서 반응이 빨랐으며, 흑인 참가자는 그 반대 현상을 나타냈다. 백인과 흑인 참가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내집단은 긍정적 평가를 하며 반면에 자신과 대치되는 외집단은 부정적 평가를 했다. 인종 고정관념에서 관찰된 집단간 일치성 효과는 성별 고정관념에서도 적용된다는 주장들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Banaji 등(1993)은 중립자극을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다음 남녀의 의존성과 공격성에 관한 평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두 평정 조건에 대한 성 차이는 없었지만, 성별 고정관념의 편향자극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여자는 의존적이며 남자는 공격적이라고 평정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Banaji와 Greenwald (1995)는 성 관련 명사, 직업, 및 남성 명사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뒤 성별 판단을 실시하면 점화자극에 고정관념적으로 일치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촉진됨을 밝혔다.

성별이나 인종 고정관념의 집단간 일치성 효과는 자신의 성이나 인종에 대한 정보가 대비되는 정보에 대한 처리보다 빠르게 일어난다는 증거이며,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 특히 자신이 속한 내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일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외집단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질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예; 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이러한 내외집단의 일치성과 내집단의 긍정적 경향성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속성은 동화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으로 발전하며 외집단의 속성은 대비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예; Vonk, 2002).

고정관념의 내외집단의 평가적 일치성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지만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의 일치성 효과는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이 일치하는 균형조건(예; '긍정-긍정' 조건 혹은 '부정-부정'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조건(예; '긍정-부정' 조건 혹은 '부정-긍정' 조건)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또한 평가적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지

1) 성(sex)와 성별(gender)의 용어 구분: 성은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성별은 사회 혹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에 대한 표상을 의미한다(예; Fiske, 1998).

않거나, 특정한 조작이 가해진 조건에서만 한정으로 관찰된다는 증거들도 제안되고 있다(예; 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Klauer, Rosnagel, & Musch, 1997). 예를 들어, 성격 특질(traits)에 대한 평가판단과제를 사용한 Klauer 등(1997)의 연구에서는 짧은 SOA(SOA 100ms)²⁾ 조건에서만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고 긴 SOA(SOA 200ms-1200ms)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명과제(naming task)를 사용하여 평가적 일치성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이재호 등(2000)의 연구에서도 짧은 SOA(SOA 150-250ms)에서는 '긍정-긍정'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관찰되었으나 긴 SOA(SOA 500-1000ms)에서는 조건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및 김미라(2001)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 표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범주 일반 이론에 따르면 범주명(예; 성별)을 상위 개념으로 하위 범주(예; 여성 혹은 남성)로 위계를 구성할 것이다(예; 이재호와 이정모, 2000). 그렇다면 동성간의 점화조건이 이성간의 점화조건에 비해서 목표 단어의 명명시간이 빨라야할 것이다. 즉 점화-목표 단어쌍이 '남성-남성' 조건과 '여성-여성' 조건이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반응시간이 빨라야할 것이다. 또한 내외 집단의 일치성 효과가 있다면 참가자 성과 자극 단어의 성별 범주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자는 남성단어보다 여성단어의 명명시간이 빨라야 하며, 남자는 여성단어보다 남성단어의 명명시간이 빨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 성별 속성의 범주 일치성 효과와 내외 집단의 일치성 효과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으며, '여성-남성' 조건과 '남성-여성' 조건은 두 조건의 중간이었다. 또한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었지만 교차적인 상호작용은 아니었다. 즉 여자 참가자와 남자 참가자는 성별 속성에 차별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여자의 경우는 성별의 범주 속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의 경우는 남성 속성에 비해서 여성 속성에 반응시간이 빨랐다. 즉 성별 속성의 범주적 점화효과와 내외 집단의 일치성 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들 효과는 단지 점화-목표 단어쌍의 SOA가 250-500ms 내에서만 관찰되었고, SOA를 1000ms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어떤 변인의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정서적 평가의 일치성 연구에서 관찰된 긍정성 효과와 성별 범주의 속성간 일치성 연구에서 관찰된 여성 속성의 효과는 사회 범주가 일반 범주에 비해서 표상적 특성에서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 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긍정 속성간의 점화가 다른 속성간의 점화보다 크게 관찰된 것은 정서 속성에 근거한 평가적 표상에서 긍정성이 중심이 되며, 성별 범주의 여성 속성간 점화가 다른 속성간 점화보다 크게 관찰된 것은 성별 범주가 여성과 남성의 이분적 표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여성 범주의 속성간의 의미적 응집성이 남성 속성간보다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두 현상 모두 공통적으로 짧은 SOA에서만 관찰되었다는 것은 이들 요인이 암묵적 수준에서 작동된다는 증거가 된다(예; 이재호 등, 2000; 2001). Rudman 등(2001)에 의하더라도 IAT(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과정을 관찰한 결과, 여자는 남자보다 'warmth'에 강한 연합을 보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power'에 강한 연합을 보인 것을 밝혀졌다. 그러나 두 성 모두 범주 속성이 부정 속성보다는 긍정 속성에 대하여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가 자신의 성이나 인종에 일치하는 범주 속성, 그 속성이 자신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속성에 빠르게 반응하며, 그런 속성은 남성보다 여성 속성에서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성별 고정관념은 범주적 도상을 구성하고 있다(Kunda, 2000). 이는 고정관념의 표상과 일반 범주 표상을 동일한 체계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상위 범주와 범주 속성이 위계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범주의 속성들이 상위 범주를 중심으로 모두 동일한 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범주는 위계적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각 위계 수준의 구성원이 속성의 특성에 따라 전형성(typicality)에 따른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이재호와 이정모, 2000; 이재호, 이정모, 및 전문기, 2002). 성별 고정관념은 성별 범주에 대한 대표적 속성에 근거한 확률근거 귀납 추론이다. 따라서 성별 고정관념의 속성은 일반 범주의 표상처럼 속성의 전형성에 근거하여 단계적 표상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예; Lakoff, 1987). 또한 일반 범주의 표상 이론에서는 범주의 구성원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에서 비교적 안정된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한다(Kunda, 2000). 예를 들

2) SOA(stimulus onset asynchrony): 점화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에서부터 점화자극이 사라지고 목표자극이 제시되기 직전까지의 시간간격

어, '사과'는 '과일'의 하위 개념이며, '부사'의 상위 개념이다. '사과'는 과일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구성 개념이지만 '키위'는 사과에 비해서 비전형적인 개념이다. 또한 '사과'는 분류학적으로 개념의 범주가 구성될 수 있지만 목표에 따라 그 범주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즉 범주의 인지적 표상은 위계성, 전형성, 및 융통성 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도 범주로 표상 되어 위계적으로 구조화되며, 각 위계의 구성원이 전형성에 따른 표상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의 성별 고정관념의 점화효과 연구에서는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의 집단 일치성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이들 연구에서는 점화-목표 단어쌍의 SOA를 300-350ms로 통제함으로써 암묵 수준의 자동적 처리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의 연구에서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의 집단 일치성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다(예; 이재호 등, 2000; 2001). 비록 두 부류의 연구는 참가자의 문화와 사용된 재료의 언어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점화-목표 단어쌍의 SOA를 150-250ms 수준에서 제시하였을 경우조차도 집단간 일치성 효과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같은 서구와 국내의 고정관념 연구결과의 차이는 과제의 판단 준거에서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즉 서구 연구는 성별판단과제(gender decision task)를 사용했고(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국내 연구는 명명과제(naming task)를 사용했다(예; 이재호 등, 2001; 2002). 실험 변인의 점화 효과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와 명명과제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예; Keenan, et al., 1990). 전자는 점화 단어의 목표 단어에 대한 점화효과가 반영되기보다는 목표 단어의 판단시 점화 단어로 역점화 전략의 과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는 점화-목표 단어쌍의 성별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역점화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의미 관계에 더 민감한 것이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이러한 고정관념 연구에서의 방법론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하여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수준의 표상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형적인 점화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는데, 점화-목표 자극쌍의 SOA를 250ms로 고정하였고 목표 단어에 대한 명명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Banaji와 Hardin(1996)의 점화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성별 범주의 위계성과 전형성 효과를 관찰하

고자 하였다. 성별 범주 변인과 전형성 변인을 조작하여 속성-범주명 자극쌍의 점화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2에서는 이재호와 이정모(2000)에서 사용한 점화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성별 범주의 속성 전형성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성별 범주 변인과 전형성 변인을 조작하여 속성-속성 자극쌍의 점화효과를 측정하였다. 두 실험은 참가자 성 변인과 성별 범주 변인을 추가 포함하여 성별 집단간 일치성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1: 속성-범주 단어쌍 점화효과

성별 고정관념이 의미 연합의 특정한 형태이며, 의미적으로 연합된 개념은 의미적으로 연합되지 않은 개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동적인 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되었다(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그러나 이재호 등(2000; 2001)의 성별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었던 성별 집단 일치성 효과보다는 성별 속성의 여성 속성과 긍정 속성이 성별 고정관념의 속성간 점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 변인의 효과는 짧은 SOA이고 명명과제인 암묵적 수준에서만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일반 범주와는 달리 사회 범주는 실제 대상을 점화하는 경우와 언어 자극을 점화하는 경우에 그 점화효과가 다르게 관찰될 가능성이 제안되었다(Macrae & Bodenhausen, 2000).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성별 범주의 점화에 의한 성별 속성의 점화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예; '미라'-'부드러운'). 그 결과,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여자는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명명시간은 빨랐지만 성별 범주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전형성과 선호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여자의 경우 전형성과 선호도 효과가 모두 관찰되었지만 남자의 경우는 선호도 효과만 관찰되었다. 성별 범주의 점화패러다임은 속성간 점화패러다임에 비해서 각 변인의 효과가 복잡하게 관찰된 것이다. 성별 범주의 주효과가 여전히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여자는 '여성-속성' 조건이 '남성-속성' 조건에 비해서 반응이 빨랐지만, 남자는 두 조건간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성별 단서의 효과도 있었지만 속성의 전형성과 선호도에도 민감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이 연구는 참가자 성에 따라 성별 범주의 표상이 다를 가능성과 집단간 일치성에 대한 효과도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실험 1에서는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의 연구에서 관찰된 참가자 성에 따른 점화효과의 차이가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경우에도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점화 단어를 성별 이름으로 제시하였고, 목표 단어를 성별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점화와 목표의 단어를 역으로 제시한 경우에 조건에 선행 연구와 동일한 점화 효과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미 Banaji 등(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은 속성-성별 범주의 점화를 통하여 점화-목표의 고정관념 일치성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성별 범주의 변인만 조작하였고, 범주의 전형성과 선호도 변인은 조작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 범주의 여성-속성 효과(예; Klauer, Rossmagel, & Musch, 1997; 이재호 등, 2001)와 긍정속성 효과(예; 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이재호 등, 2001)는 Banaji 등의 연구에 대비되는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참가자 성의 일치성 효과와 범주의 속성간 일치성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53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33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0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고정관념 속성의 전형성(전형, 비전형), 속성 선호성(긍정, 부정), 성별 범주(여성이름, 남성이름) 및 참가자 성(여자, 남자)이었다. 이중에서 참가자의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으며, 나머지 세 독립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2*2*2)*2 혼합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점화단어는 명사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글자의 길이는 3-5자로 통제하였으며, 참가자의 성별 범주, 전형성 평정치, 및 선호도 평정치를 근거로 하여 선별하였다. 선정된 점화단어는 여성과 남성의 각 범주별로 전형성 점수가 높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높은 단어 5개, 전형성 점수가 낮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높은 단어 5개, 전형성 점수가 높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낮은 단어 5개, 전형성 점수가 낮으면서 선호도 점수가 낮은 단어 5개이었다. 그 결과, 성별 범주별로 각각 20개씩의 점화단어를 선정하여 모두 40개의 점화단어가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목표단어는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 조사된 성별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성과 남성 범주별로 각각 20개의 이름을 중복 없이 선별하였다. 실험재료는 '속성-성별 범주'의 단어쌍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참조). 참가자는 각 조건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조건에 제시된 자극쌍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모두 4개의 이형 자극 목록 세트를 만들었다. 참가자는 4개의 이형 중에서 한 이형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750ms 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15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10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SOA 250ms). 자극 제시의 통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또한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생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음을 개시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며, 이 시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게 하였다. 그런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 진행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명명반응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1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한 단어였다. 본 실험의 시행절차는 연습시행과 동일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펜티엄 기종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Quick Basic으로 구성하였으며, MS-DOS 6.20상에서 수행되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참가자는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의 명명 오류는 거의 하지 않았다.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0.5%).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참가자 성(여자: 617ms, 남자: 624ms), 성별 범주(여성: 622ms, 남성: 619ms), 및 선호도(긍정: 619ms, 부정: 622ms)의 주효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단지 점화단어의 속성 전형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전형: 617ms, 비전형:

[표 1] 참가자 성, 성별, 전형성, 및 선호도에 따른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의 평균 (ms)

성(sex)	성별	전형/긍정	전형/부정	비전형/긍정	비전형/부정	평균
여자	여성	620 (83)	622 (86)	614 (81)	619 (73)	619
	남성	617 (91)	609 (77)	616 (68)	618 (76)	615
	평균	618	615	615	619	617
남자	여성	627 (94)	617 (79)	618 (84)	639 (83)	626
	남성	605 (81)	622 (81)	631 (84)	632 (96)	622
	평균	616	619	624	635	624

() 안은 표준편차

623ms, 6ms 차이, $F(1,51)=4.48$, $MSe=831.57$, $p<.05$). 그리고 참가자 성과 전형성의 이원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51)=4.45$, $MSe=831.57$, $p<.05$). 이원 상호작용의 단순 주효과 분석에서는 남자는 전형 속성(618ms)이 비전형 속성(630ms)에 비해서 12ms 빨랐지만($F(1,19)=7.63$, $MSe=782.38$, $p<.01$), 여자는 전형과 비전형 속성에 따른 명명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전형: 617ms, 비전형: 617ms). 즉 남자는 전형성에 따른 점화효과가 관찰되었지만 반면에 여자는 전형성에 따른 점화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형성의 주효과는 남자의 전형성 변인의 효과에 기인한 결과이다.

성별 속성을 점화하여 성별 범주의 점화효과를 관찰한 실험 1은 성별 범주를 점화하여 성별 속성의 점화효과를 관찰한 이재호 등(2001)의 연구와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는 실험 1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선호도의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는 속성 전형성의 주효과만 관찰되었지만 남자 참가자에게서만 관찰되었다. 셋째는 변인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점화-목표 조건이 성별 범주인 조건과 성별 속성인 조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범주는 사람 이름이며 속성에 비해서 성별에 관한 사회 정보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성별 범주에 대한 의미적 점화가 강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성별의 성격 특질을 점화한 조건에 비해서 실제 유명인의 이름을 점화한 경우에 현저성이 높았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예; Macrae & Bodenhausen, 2000). 실제 대상을 제시하면 점화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별의 선호도 효과에 비해서 전형성 변인은 점화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점화효과를 보였다. 성별 선호도의 평가적 차원은 범주 대상을 통해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형성은 점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예; 이재호와 이정모, 2000; 이재호, 이정모, 및 전문기, 2002).

반면에 성별 범주와 집단의 일치성 효과는 여전히 관찰되지 않았다(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이는 성별 고정관념이 참가자의 성이나 성별 범주의 표상된 속성도 대칭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일 가능성을 함의하는 것이다. Fiske(1998)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지각이 비대칭적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양쪽 성은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동질적으로 지각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남자는 기본 집단(default group)이지만 여자는 표지된 집단(marked group)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험 1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여성 속성의 점화우위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점화조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실험 2에서는 참가자 집단의 일치성 효과를 속성-속성 점화과제를 통해서 검증하고 선행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여성 속성 효과와 전형성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 2: 속성-속성 단어쌍 점화효과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인 표상은 외현적인 표상과 해리 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고정관념의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간의 일치성 효과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Banaji와 Hardin(1996)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 성이 여자이면 성별 속성에서 남성 속성보다 여성 속성의 반응시간이 빠르며, 반면에 남자는 여성 속성보다 남성 속성의 반응시간이 빠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성별판단과제(gender decision task)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목표 단어가 여성 단어인지 남성 단어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목표 단어 반응시에 반응전략이 작용하여 의식적인 외현적 처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Banaji 계열의 연구에서 관찰된 성별 일치성 효과가 암묵적 수준에서 설명되기 위해서 방법론적 엄격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재호 등(2001)은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표상의 암묵적 특성을 관찰하고자 성별 속성의 범주간의 점화효과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점화-목표 단어쌍의 제시 조건을 SOA를 300ms로 제한하였고, 목표 단어의 명명시간을 측정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여성-

여성', '여성-남성', '남성-여성', '남성-남성'의 네 조건의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참가자 성과 성별 고정관념의 대칭적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의 상호작용이 관찰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성별 속성의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이 대칭적 관계이기보다는 비대칭적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속성-범주 조건을 속성-속성 조건으로 전환하고 성별 범주의 전형성 효과와 성별 집단간 일치성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재호 등(2001)의 연구와 실험 1의 연구에서 전형성 변인의 주효과가 계속 관찰되었는데, 이는 성별 고정관념이 속성의 전형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와 실험 1에서는 점화조건이 위계간 점화, 즉 범주-속성 혹은 속성-범주 점화 조건이었지만 실험 2는 전형성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전형성 변인에 따른 속성-속성 점화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였던 참가자의 성과 성별 일치성 효과도 관찰하고자 하였다. 만약 성별 범주가 단계적인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면 전형성 변인에 의한 점화효과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여야 한다. 또한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는 서구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방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74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52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2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성별(여성이름, 남성이름), 점화(전형, 비전형), 목표(전형, 비전형), 및 참가자의 성(여자, 남자)이었다. 이중에서 성별, 점화, 및 목표 변인은 전형과 비전형 조건을 수준으로 하여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

작하였으며, 참가자의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2*2*2)*2 혼합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성별 고정관념을 구성하는 전형성 변인을 성별, 점화, 및 목표 조건에 두 수준씩 할당하여 모두 8개의 실험 조건이 구성되었다.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 선정된 성별 고정관념의 전형성 관련 행용사를 각 조건에 5개씩 할당하였다. 한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성별 고정관념의 단어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부록 2 참조).

실험절차: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결과 및 논의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의 명명오류는 거의 없었다.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0.6%).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이 표 2에 제시되었다.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참가자 성은 여자(630ms)가 남자(595ms)보다 35ms 느렸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2)=3.96, MSe=37465.86, p<.05). 또한 성별단어는 여성단어(609ms)가 남성단어(616ms)보다 7ms 빨랐으며,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2)=5.97, MSe=1042.47, p<.05). 참가자 성과 점화조건에 의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2)=4.23, MSe=1507.97, p<.05). 이 상호작용은 점화조건에서 여자는 전형(627ms)이 비전형(633ms)보다 7ms 빨랐지만, 반면에 남자는 전형(600ms)이 비전형(591ms)보다 오히려 9ms나 느렸다. 이는 특히 전형-전형 단어쌍에서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의 상호작용에서 반영된 것이었다(F(1,72)=5.75, MSe=1265.37, p<.05). 즉 여자는 전형-전형 조건에서 여성 속성보다 남성 속성에 대한 반응시간이 8ms 빠른 반면에 남자는 같은 조건에서 남성 속성보다 여성 속성에 대한 반응시간이 오히려 23ms 빠른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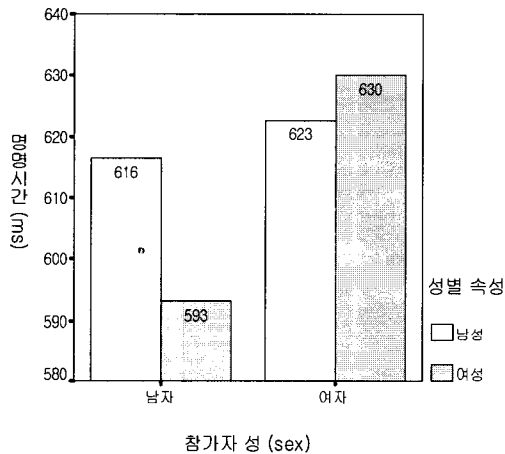
실험 2의 결과에서 이재호 등(2001)의 선행연구 결과

[표 2] 참가자 성, 성별, 전형성 조건에 따른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의 평균 (ms)

성(sex)	성별	전-전	전-비	비-전	비-비	평균
여자	여성	630 (71)	624 (72)	629 (81)	627 (75)	627
	남성	622 (74)	633 (79)	638 (79)	638 (78)	633
	평균	626	628	634	633	630
남자	여성	593 (72)	590 (72)	592 (77)	589 (72)	591
	남성	616 (71)	600 (76)	587 (66)	597 (77)	600
	평균	604	595	590	593	595

* 전-전: 전형-전형 조건, 전-비: 전형-비전형 조건, 비-전: 비전형-전형 조건, 비-비: 비전형-비전형 조건, () 안은 표준편차

가 반복검증되었다. 그들은 성별 속성의 범주내와 범주 간 점화에서 범주 효과보다는 여성 속성의 점화우위 효과를 관찰하였다. 즉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실험 2의 결과에서도 참가자 성에 관계없이 여성 단어가 남성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7ms 빨랐다. 이는 여성 속성이 남성 속성에 비해서 의미적 응집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예; Fiske, 1998). 참가자 성 변인을 고려하면 여자에게만 성별 일치성 효과의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 주장하였던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성 효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전히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 전형-전형 점화조건에서의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상호작용

특히 실험 2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점화-목표 조건의 점화효과에서 전형-전형 조건은 다른 조건에 비해서 역 고정관념 점화효과가 관찰된 것이다. 성별 속성의 전형-전형 점화조건에서 보면, 전형성 변인이 같은 성에 속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여자는 여성보다 남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고, 남자는 역으로 남성보다 여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두 변인간에 상호작용이 관찰된 것이다(그림 1 참조). 이는 기존의 참가자 성과 성별 속성의 일치성 효과에 대비되는 결과이다. 참가자의 상대방 성에 대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된 것은 상대성의 성별 속성에 대한 표상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즉 내집단 속성의 표상에 비해서 외집단 속성의 표상의 강도가 강하다는 증거가 된다.

종합 논의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인 표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의 목적은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간의 일치성효과를 검증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상위 범주를 중심으로 속성의 전형성에 따른 단계적 표상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두 실험의 공통적인 독립 변인은 참가자 성, 성별 속성, 및 전형성 변인이었고, 두 실험에서 점화-목표 단어쌍의 점화조건이 다르게 조작되었다. 실험 1에서는 성별 속성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성별 범주인 인명을 목표 자극으로 제시하는 속성-범주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 실험 2에서는 성별 속성간의 점화 자극쌍을 사용하였다. 실험 1에서는 전형성의 주효과가 관찰되었고, 실험 2에서는 성별 속성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두 실험 모두 성별 속성의 집단간 일치성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형성 효과의 크기도 미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성별 고정관념은 사회적 정보를 범주적으로 표상하는 인지적 구조이며 복잡한 사회 정보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사회 정보의 범주와 표상의 과정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된다고 알려졌다(Fiske, 1998; Kunda, 2000). 사회 정보의 고정관념에 의한 자동적인 도식적 처리는 자신의 사회 범주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대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 정보의 범주화 자체는 인지적 과정이지만 범주화된 정보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평가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같은 편향적 기준이 내집단 긍정과 외집단 부정의 이분화나 점화와 목표 자극의 균형적 일치성 효과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예; Banaji & Greenwald, 1995; Bargh, et al., 1992).

성별 범주의 대칭성: 이재호 등(2000; 2001)은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를 암묵적인 수준에서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서구의 연구와는 다르게 관찰되었다.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와 성별 범주의 속성간 일치성 효과가 모두 관찰되지 않았고, 단지 성별 범주의 여성 속성의 점화 우위 효과만 관찰되었다. 즉 여자나 남자 참가자 모두에게서 남성 속성보다 여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실험 2에서도 반복되었다. 즉 참가자 성에 관계없이 여성 속성이 남성 속성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이

는 성별의 표상이 여자와 남자의 범주로 이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Rudman 등(2001)에 따르면 참가자의 성보다는 속성의 바람직함이 IAT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자신과 일치하는 경우에 더 크다고 했다. 비록 실험 1의 속성-범주 조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자 성에 따라 성별 범주는 상이한 표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예; Fiske, 1998; 이재호 등, 2001).

내외 집단의 일치성 효과: 선행 연구를 포함하여 두 실험은 참가자 성의 일치성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다. 단지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험 1에서는 속성 변인의 점화효과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점화 조건이 반대인 이재호 등(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는 선호도 효과만 관찰되었고 여자의 경우는 전형성과 선호도 효과 모두가 관찰되었다. 이는 어떤 정보 혹은 단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여자와 남자의 성별 범주의 활성화 과정과 적용 과정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연구의 결과만 비교해 본다면, 여자는 사례 혹은 실제 대상을 점화하는 경우에는 범주의 속성이 전형성과 선호성에 따라 활성화되는 양상이 구분되지만 남자는 속성을 점화하는 경우에 범주의 전형성 변인에 따라서만 점화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자는 실제 범주 대상을 중심으로 성별 범주의 속성의 활성화가 작동하는 상황적 처리가 우세한 반면에 남자는 속성 정보에 의한 하향적 처리가 우세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속성의 전형성 효과: 성별 속성의 의미적 관계는 정서적 평가 속성과 속성의 전형성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예; 이재호 등, 2001). 이 연구는 속성의 전형성 변인을 조작하였다. 실험 1에서는 속성의 전형성 변인이 성별 이름의 점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보였다. 이는 이재호 등(200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실험 2에서는 속성간의 전형성 변인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전형-전형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의 잇점이 없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참가자 성 변인과 상호작용한 결과를 보였다. 즉 여자는 남성 속성이 여성 속성보다, 남자는 여성 속성이 남성 속성보다 반응이 빠르게 관찰된 것이다. 이는 상대성에 대한 전형적 속성의 활성화가 높다는 증거가 된다. 특히 그 효과는 전형-전형 조건에서 강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관찰된 전형성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그 크기가 적다는 것이다. 첫째, 실험 재료의 전형성의 평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 사회 범주에서는 속성의 전형성의 비중이

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성별 속성간의 점화 효과는 실제 대상의 점화효과에 비해서 미약할 가능성도 있다(예; 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두 실험을 통해 서구 연구에서 주장하던 성별 집단간 일치성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성별 범주의 전형성은 점화 방식과 단서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이 사회적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범주적인 표상을 구성하며 고정관념의 활성화와 적용의 과정은 매우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졌지만(Banaji & Greenwald, 1995; Bargh, et al., 1992; Fiske, 1998; Kunda, 2000), 암묵적 수준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의 표상과 활성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표상이 남녀로 대등한 표상을 구성하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비대칭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을 강하게 함의하며, 성별 범주 자체가 위계적으로 안정된 표상을 강하게 구성하고 있기보다는 추상적 메타 범주로 기능할 가능성이 제안될 수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상대 성에 대한 표상이 교차적이고 대칭적이기 보다는 여성 속성과 긍정 속성이 중첩된 표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자는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는 내 집단 선호 경향이 높으며, 성별 범주에 의한 범주 판단이 남성에 비해서 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에 따른 차이는 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인지적 특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공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서울: 학지사.
-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조궁호 (2000). 성별 선호도의 긍정-부정성이 자동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24-225.
-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 이재호, 이정모, 전문기 (2002). 개념 유형에 따른 전형성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대상개념과 행위개념의 차이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4, 17-34.
-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김미라 (2001). 사회적 범주의 자

- 동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인지과학*, 12, 43-54.
-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 단서, 범주 전형성 및 성별 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49-67.
- 조혜자 (2001).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2001년도 여성 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5.
- Bargh, J. A., Chaiken, S., Govend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93-912.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naji, M., Hardin, C., & Rothman, A. J. (1993). Implicit stereotyping in person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272-281.
-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ovidio, J., Evans, N., & Tyler, R. (1986). Racial stereotypes: The contents of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2-37.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357-411). NY: McGrawHill.
- Fiske, S., & Taylor, S.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Y: McGraw-Hill.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Keenan, J., Potts, G., Golding, J., & Jennings, T. (1990). Which elaborative inferences are drawn during reading? A question of methodologies. In D. Balota, G. Flores d'Arcais, & K. Rayner (Eds.), *Comprehension processes in reading*. Hillsdale, NJ: Erlbaum.
- Klauer, K. C., Rossm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McGarty, C. (1999). *Categorization in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Vonk, R. (2002). Effects of stereotypes on attitude inference: Outgroups are black and white, ingroups are shaded.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157-167.

접 수	2003년 5월 1일
게재승인	2003년 7월 8일

[부록1] 실험 1에서 사용된 점화단어와 목표단어 (참여자 수=115명)

여성단어	점화 단어			남성단어	목표 단어		
	전형성	선호도	선호도		전형성	선호도	선호도
발랄한	4.60	5.94	책임감	4.70	6.35	미라	성수
사랑스런	4.99	6.31	듬직한	5.18	5.45	민정	동수
가냘픈	4.48	6.27	바지입는	5.52	4.27	복희	동훈
아름다운	5.07	6.12	독립심	4.76	5.67	선화	명석
꾸미는	5.47	5.40	돈을버는	4.93	5.35	수연	영석
눈물있는	5.25	5.04	늑대같은	5.21	2.62	순자	일호
소중한	4.67	3.92	담배피는	4.63	2.85	지영	태환
수다스런	4.76	3.11	군대가는	6.38	3.64	은미	성일
빠지는	4.83	3.13	색밖히는	4.66	2.99	은정	문수
질투하는	5.05	3.24	보수적	4.43	3.08	선희	준호
성실한	3.60	6.05	속이넓은	3.99	6.20	경화	정호
자상한	3.89	6.01	능동적	4.29	6.19	민지	광호
분위기있는	4.10	5.66	여유로운	3.65	6.00	민희	진석
침착한	3.83	5.66	적극적	4.36	5.91	선주	민규
차분한	4.07	5.24	똑똑한	3.58	5.35	수진	상진
신경질적	3.67	1.80	이기적	3.41	2.02	숙희	진우
잔인한	2.83	2.00	무신경한	3.70	2.57	승희	완석
이중적	3.50	2.05	잘난척	3.48	2.13	애란	현용
지조있는	3.74	2.05	허풍떠는	4.13	2.25	영희	진수
허영심있는	3.99	2.31	무뚝뚝한	4.03	3.31	은아	종화

* 전형성 평정치 7점 (1점 가장 비전형, 7점 가장 전형), 선호도 평정치 7점 (1점 가장 부정, 7점 가장 긍정)

[부록 2] 실험 2에서 사용된 점화단어와 목표단어 (참여자 수=115명)

점화-목표 조건	여성 단어				남성 단어			
	점화 단어		목표 단어		점화 단어		목표 단어	
전형-전형	화장	5.70	눈물	5.25	군대	6.38	건장한	5.32
	가슴	5.64	치마	5.11	수염	5.94	명예욕	5.23
	꾸미는	5.47	감성적	5.10	힘센	5.61	늑대	5.21
	예쁜	5.15	아름다운	5.07	바지	5.52	듬직한	5.18
	긴머리	5.13	질투	5.05	강인한	5.41	넓은어깨	5.15
전형-비전형	눈물	5.25	내성적	3.55	건장한	5.32	고집	3.59
	치마	5.11	냉정한	3.53	명예욕	5.23	똑똑한	3.58
	감성적	5.10	이중적	3.50	늑대	5.21	거친	3.26
	아름다운	5.07	구두	3.49	듬직한	5.18	날카로운	3.16
	질투	5.05	소극적	3.36	넓은어깨	5.15	무식한	2.97
비전형-전형	조용한	3.80	화장	5.70	여유	3.65	군대	6.38
	계산적	3.70	가슴	5.64	나약한	2.60	수염	5.94
	신경질	3.67	꾸미는	5.47	둔한	3.28	힘센	5.61
	성실한	3.60	예쁜	5.15	잘난척	3.48	바지	5.52
	순종적	3.58	긴머리	5.13	이기적	3.41	강인한	5.41
비전형-비전형	내성적	3.55	조용한	3.80	고집	3.59	여유	3.65
	냉정한	3.53	계산적	3.70	똑똑한	3.58	나약한	2.60
	이중적	3.50	신경질	3.67	거친	3.26	둔한	3.28
	구두	3.49	성실한	3.60	날카로운	3.16	잘난척	3.48
	소극적	3.36	순종적	3.58	무식한	2.97	이기적	3.41

* 전형성 평정치 7점 (1점 가장 비전형, 7점 가장 전형)